

‘독도 아카데미’ 대녀온
조선대 김재상씨



“독도 역사 알아야 지킬수 있다는 사실 깨달아”

“독도는 외롭게 한반도의 동쪽 끝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도의 과거와 현재를 공부하고,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뒤늦게나마 갖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독도를 다녀온 조선대 제어계측로봇 공학과 3학년 김재상(24)씨는 독도를 밟은 순간 기쁨이 물을 헤쳤다고 전했다. 김씨는 ‘독도수호 국제연대’에서 주관하는 독도아카데미 제19기 교육생으로 지난 5월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 진행된 독도주권이론교육을 수료하고 협장방의 일환으로 목표와 울릉도를 거쳐 독도를 다녀왔다.

“울초 독도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찾다가 독도아카데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19기고 한 기수 수료생이 200명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이 다녀갔겠습니까?”

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김씨는 매주 주말 서울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위해 새벽 차를 타고 올라가 저녁 늦게 내려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교육비는 무료지만 교통비와 식비는 김씨가 스스로 마련했다.

교육은 독도의 역사를 시작으로 독도의 현재, 일본의 독도 침탈 전략, 독도가 갖는 의미 등 일본과의 독도분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그리고 10명의 팀원과 함께 ‘독도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논의해 팀별 과제를 수행했다.

또 팀별로 각자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서적 가운데 독도를 ‘Takeshima’와 ‘Sea of Japan’으로 표기한 서적들을 찾아 수정, 교체, 추방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교육도 교육이었지만 우리가 막연히 생각만

하던 문제를 직접 실천으로 옮기는 수도권 학생들의 열의에 놀랐습니다. 거리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200명의 수료생 가운데 우리 지역 학생이 3명뿐이어서 아쉬웠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이 조건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김씨는 최근 독도 알리미를 자처하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 내에 최근까지 진행된 독도아카데미 20기 모집 공고를 올리고 지역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 SNS와 블로그를 통해 독도 분쟁 문제를 홍보하고 있다.

“홀로 외롭게 서있는 독도는 그동안 우리 국민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대학 도서관 내에 독도를 잘못 표기한 서적을 추방하는 운동과 함께 지역 대학생들에게 독도 문제를 알리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코트파’ 신중록 대표 문화콘텐츠 강연



(申)코트파 신중록 대표이사 회장이 5일 오후 4시30분 광주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11년 찾아가는 문화콘텐츠 전문가 강연’에 초청돼 ‘현장 중심의 MICE산업 성공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달인’ 김병만 행안부서 특강



달인 개그로 유명한 김병만 씨가 4일 오전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전과 극복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행안부는 김씨의 성실함과 도전 정신을 높이 사 이번 특강을 기획했고 김씨는 개그맨 자체로부터 지금까지의 끊임없는 도전 과정을 들려줬다.

금호가족 문화예술제 수상작 전시



금호고속과 금호티미널(사장 김성산)은 오는 7일까지 광주시 서구 광진동 유·스퀘어 금호갤러리에서 ‘제1회 금호가족 유·스퀘어 문화예술제’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전시 작품은 지난달 25일 금호가족 150여명이 참가해 안전운행, 신나는 유·스퀘어, 가족여행을 주제로 그림·글짓기·서예·체험수기 등으로 솜씨를 겨루 선정된 수상작 및 출품작 100여점이다.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는 그림 송인서(문화조3)군, 글짓기 정다혜(나나이고 3)양, 체험수기 이인숙, 서예 정은진(삼각초 6)양 등이다.

금호 관계자는 “인직원 가족 간 교류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도시설계 기준은 사람…광주회의가 출발점”

UEA 광주정상회의 기조연설자 레스터 브라운씨

“2011 도시환경협약(UEA) 광주 정상회의(이하 광주정상회의)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아 기쁩니다. 광주정상회의에서 지금까지 디자인되는 세계 환경운동의 ‘대부’로 불렸던 도시환경에 대한 생활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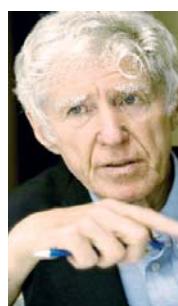
광주정상회의 주제회의 기조연설자인 레스터 브라운(Lester R.

Brown·77) 지구정책연구소 소장이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이번 광주정상회의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밝혔습니다. 세계 환경운동의 ‘대부’로 불렸던 브라운 소장은 지난 1974년 최초의 환경문제 전문기구인 세계감시위원회를 창설하고 1994년엔 UN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브라운 소장은 “근 1세기 동안 우

리는 자동차에 맞춰 도시를 설계해왔으며, 인간이 중심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이기인 자동차를 기준에 두고 도로를 건설하고 건축물을 지었다”며 “그런 결과 오늘날 우리는 자동차에 예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 도시설계와 운영의 기준을 사람으로 바꾸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광주정상회의는 이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전체 지구 면적 2%에 불과한 도



시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탄소 배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 환경문제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주장한 브라운 소장은 ▲경전철 등 전기에너지 사용과 통시스템으로의 전환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보급 ▲도심 내 공원 확대 ▲보행 및 자전거 친화적인 시스템 개발 등을 그 대책으로 제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천주교 광주대교구 옥현진 주교 내일 서품식

천주교 광주대교구(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옥현진 보좌주교에 대한 서품식을 6일 오후 2시 주교좌 일동성당에서 거행한다.

옥주교는 지난 5월 12일 베네딕토 16세 교황으로부터 천주교 광주 대교구 보좌주교와 뛰어난 평신도 등 1600여 명이 참석해 주교 탄생을 축하할 예정이다.

서품식은 1부 주교서품식 미사, 2부 축하식으로 진행되며 주교서품식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인수와 도유리를 비롯해, 복음서와 주교를 상징하는 반지, 주교관 등이 전

달된다. 이날 서품식에는 오스발도 파밀라 주한 교황대사를 비롯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 등 교계 주요 인사와 강운태 광주시장, 김석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등 정관계 인사, 평신도 등 1600여 명이 참석해 주교 탄생을 축하할 예정이다. 타 종단을 대표해서는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 이 참석한다.

서품을 받는 옥주교는 무안 출생

으로 1994년 사제품을 받고 광주대교구 능성동, 북동 성당 보좌신부로

사목했다. 1996년 로마로 유학했으며 2004년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에서 교회역사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춘남동 성당 주임과 교회사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지난 5월 작고한 옥만호 전 광주교구장은 옥주교의 5촌 당숙이다. 문의 062-380-280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대 조리과학과 국제 요리대회 대상

호남대 조리과학과(학과장 이선호) 학생들이 중국에서 열린 ‘제8회 국제한중식문화교류전 및 대장금 요리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과 중국 사회과학연합회, 중국산동성 정부 공동 주최로 중국 산동성 위방·연태·청도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호남대 조리과학과 참가 학생들은 한국 식재료를 이용한 주막 음식과 폐백상차림을 출품해 대상을 수상하는 평가를 이뤘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전남우정청 ‘안티 보이스피싱 봉사단’ 결성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성진)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전남 25개 총괄우체국에 ‘Anti-보이스피싱 봉사단’을 결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다고 4일 밝혔다. 우체국 직원과 이용 고객 320여명으로 구성된 Anti-보이스피싱 봉사단은 앞으로 방

동을 벌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화족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모집

일(금) 낮 12시 대서양꽃게장백반 (구 시청 흠플러스 옆) 062-943-2553.

▲월풀회(회장 조동수) 월례회 = 11일(월) 오후 6시 30분 무등회관 062-525-0033.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알림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66만 전·의경 출신 모임=전·의경회 결성 019-277-0007.

▲대한요양병원 문화강좌=12일(화) 오전 10시~11시 20분(당뇨, 혈압, 노인성질환 무료강좌) 장소는 대한요양병원 내 062-520-9000~1.

▲목포고 5회 동참회(회장 정병섭) 월례회=5일(화) 낮 12시 감나

동창·동문회

무집(집양군 수복중 정문앞) 061-383-6123. 출발은 오전 11시 동부경찰서 옆 주차장.

▲일우회(회장 조동수) 월례회=8

▲한국노후생애대학 3기생=

화족

=인권, 환경 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 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 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봄 Hair Art=디자이너 스텝, 인턴사원 모집, 주 5일근무, 유경협

모집

자 우대 062-952-8253.

▲영스타 국제 목욕관리사 학원

=목욕관리사·세신사·구두·麝사·

지·매·좌·외·남녀수강생 수시모집

(취업알선) 062-225-0044.

▲축령산 지킴이 회원=장성 축령산을 공유하고 편백의 숲을 지키

실 40~50대 회원 011-646-3577.

부동

▲임원택씨 별세 채기·채화씨 부

친상=발인 6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이용운씨 별세 김진백(전 북부 경찰서 서장)·희연·수연·태균씨 모친상=발인 5일(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허성구씨 별세 병탁·병숙·미경·숙미씨 부친상=발인 5일(화)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장례식장

마을 까지 꽂 암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장례식장

마을 까지 꽂 암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장례식장

마을 까지 꽂 암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